

# 한국 과학기술 · 문명 전체 역사 담았다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12년 프로젝트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30권 출간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소장 신동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으로 2010년 총서 발간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국문 30권, 영문 7권의 한국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총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분석화에 반영된 고대인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현대의 반도체기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과학기술과 문명에 대한 전체 역사를 규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이에 따르면 이 총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관통해 과학기술 전 분야의 성취를 포함한 과학이 실제 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담았다. 출판된 총서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 난무하는 시대, 이와 같은 야심 찬 대형 총서 프로젝트의 수행과 완결로 이뤄낸 학술적 성취는 일본과 중국 등 이웃 나라들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30권

의 부러움은 물론 국제 학계에서도 찬사를 받고 있다.

이 거대 프로젝트를 완성한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는 2010년 카이스트에 설립돼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 2015년 전북대로 확대 이전해 총서 발간 사업에 박차를 가해 이번 성과에 이르렀다.

특히 7권의 영문판은 세계적 명성을 지닌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국내외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케임브리지대학출판사에서 비서구권 인문·과학 총서가 출판된 것은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 이어 두 번째다.

신동원 소장은 "12년에 걸쳐 이뤄낸 이번 성과는 세계에 한국 과학문명의 전모를 보여줄 수 있는 정전(正典)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내외에서 새로운 주제 발굴과 추가 번역 출판 문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성과를 문화예술 분야의 한류에 이어 학술 출판 분야 한류를 여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는 이번 총서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31일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성과에 대한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 남원에어레일 · 어사와이어 운영 돌입

모노레일 · 짚와이어 · 집라인

남원시와 우여곡절을 겪은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에어레일(모노레일)과 어사와이어(짚와이어, 집라인)를 지난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원테마파크측은 "남원시의 영업 진행 안내에 따라 운영을 시작한다"면서 "광한루로 대표되는 남원 관광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에어레일은 최첨단 안전시스템을 갖춘 8인승 모노레일로 무인으로 운영되며,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소리체험관, 시립김병중미술관을 연결하는 총 연장 2.44km의 관광 모노레일 시설로 최고 높이 11.2m 고공 레일을 따라 남원 관광단지 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편안하게 조망할 수 있다.

남원에어레일과 함께 오픈하는 '어사와이어'는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옆에 위치한 높이 78m의 춘향타워에서 출발하여 남원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라인 시설로 남원 여행에 다이내믹



함을 더해 줄 예정이다.

어사와이어는 최고 시속 80km속도로 춘향타워 70m에서 출발해 요천을 지나 광한루원까지 910m 구간을 비행하는 프리미엄 코스와 춘향타워 45m의 높이에서 출발하여 함파우소리체험관으로 연결되는 550m의 길이의 패밀리코스 두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에어레일과 어사와이어 홈페이지(www.namwont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원 증액

전북문화관광재단은 1일부터 202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1만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른 결과로, 상향된 지원금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기회가 마련됐다.

아직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1일 18시 이후부터 온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시 11만 원으로 충전돼 발급된다. 주민센터에서는 2일 9시 이후부터 발급 가능하며, 기존 발급자의 경우도 잔액에서 1만 원이 충전된다. 충전 완료 후,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13시부터 17시

사이 순차적으로 문화누리카드 1만 원 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1만 원 추가 충전 작업을 위해 1일 18시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이 중단되며, 1일 00시부터 06시까지는 카드 이용이 중단된다.

재단 류상록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은 "추가 지급된 지원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여러 기획사업과 프로모션 이벤트를 기획해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들의 사용 여건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부안청자박물관 뮤지엄샵 '새단장'

도예작품 전시 · 판매 · 청자이미지 활용 아트상품 등 만날 수 있어

부안청자박물관 뮤지엄샵이 기존 협소한 공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청자갤러리로 이전, 새롭게 단장하여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번 청자박물관 뮤지엄샵 새 단장은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자산업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침체된 도자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도예인들의 소득창출 및 창작품들의 전시 판매공간 확보 등 부안청자문화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청자박물관 뮤지엄샵에서는 부안도예가협회 도예작품의 전시 · 판매뿐만



아니라 부안관요의 명품청자, 부안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품 등 청자이미지를 활용한 아트상품의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인다.

/부안=김석진 기자

또한 주말에 뮤지엄샵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도예가들이 직접 만든 다도구를 사용하여 차를 즐기며 청자의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답소를 나누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박물관 내 뮤지엄샵은 '청자타일 만들기 체험실'로 리모델링하여 누구나 참여하는 공간으로써 관람객들이 청자타일위에 채색한 후 가마에 구워내어 박물관 야외 타일벽화로 장식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다시 찾아보는 만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안청자박물관 최동현 팀장은 "새롭게 단장한 청자박물관 뮤지엄샵이 일상에서 도자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청자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청자상품들을 선보이고, 홍보와 판매를 통하여 코로나로 지친 지역도예인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11회 가족과 함께하는 동시화대회 '박윤후 · 장선재 가족' 대상

'제11회 가족과 함께하는 동시화대회'에서 박윤후 · 장선재 가족이 대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북동시화협회(회장 박예분)와 최명희문화관(관장 최기우)이 주최 · 주관하고, 전북교육청이 후원한 이 대회는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의 의미를 더해 한껏 풍성하게 치러졌다.

이에 따르면 저학년 90가족, 고학년 95가족, 유치원 3가족이 응모해 모두 188점이 접수, 그 결과 박윤후(전주금평초 3년) · 장선재(전주북

일초 5년) 가족이 대상, 김서윤(고창신림초 6년) · 정윤후(전주전일초 1년) 가족이 금상을, 김민서(서곡초 3년) · 안원준(전주북일초 5년) · 윤세준(전주용덕초 2년) · 한아빈(전라초 5년) 가족이 은상을, 김나경(김제동초 1년) · 송서울(전주장동초 4년) · 양서은(전주전일초 4년) · 유한율(전주용덕초 1년) · 이가은(전주대정초 3년) · 이예은(전주전일초 4년) 가족이 동상을 받는 등 62가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저학년 대상을 받은 박윤후 어린이 가족은

손동원 시인의 동시 '연필이 신날 때'를 동시화로 표현했다. 이 동시화는 동시와 그림이 잘 어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즐겁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고학년 대상인 장선재 어린이 가족은 김경숙 시인의 동시 '어린이날'을 동시화로 표현했다. 가족의 다양한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 오려 붙인 생생한 동시화는 동시의 재미를 더했으며, 가족의 끈끈한 정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시상식은 3일 오전 10시 최명희문화관에서 열린다. 수상 작품 14점은 9월 2일~10월 12일까지 최명희문화관에서 전시하고, 장려상 48점은 시상식장에서 전시된다. /장은성 기자

# 반딧불축제 기념 '무주사진가협회 회원전' 개최

무주반딧불축제를 기념하는 제26회 무주사진가협회 회원전이 김환태문화관 1층에서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사진가협회 회원들의 그동안 정성들여 촬영한 작품은 모두 33점 남대천 아침을 비롯해 덕유산 겨울, 한중루의 벚꽃과 눈, 운문산 반딧불이, 월화탄의 봄 등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무주사진가협회(회장 이운승)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 27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작품전시 계속될 예정이다.

무주사진가협회 이운승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산과 계곡, 명승지 등을 누비며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회원 여러분의 사진 속에 담긴 '덕유산'과 '적상호' 등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빛나는 무주의 사계가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에 풍성하게 하고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청정무주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